

믿음은 삶을 여유 있게 합니다

창 14:13-24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급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급한 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생각하는 것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여유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금방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는 그 불신앙 때문에 크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그 땅에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한 그룹과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룹의 군사력이 더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왕 그룹들은 항상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12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되던 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고, 14년이 되던 해 두 그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서 소돔왕의 동맹군이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은 폐허가 되었고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만 전쟁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3 절을 보면 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실 조카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두 집안의 목자가 다투기도 했고, 또 자기가 더 좋은 곳을 선택에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얼마간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전쟁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고것, 참 썸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들은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손해를 주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잘 살기는 커녕 암에 걸려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속 시원하다, 참 잘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떠났더라도 그가 위기에 부딪혀 어려워 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절대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보고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어려움을 아파했고 그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 사병(집에서 훈련시키는 개인적 군병) 318 명을 데리고 전쟁에 동참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군사적 힘이 얼마나 큰 지 계산하지 않은 채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도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승리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기껏해야 318 명의 사병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이 숫자로는 어렵도 없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계산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를 전부 재서 어떤 일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계산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따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식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머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라는 것을 계산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병 318 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삶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는 창 12 장에서 제 3 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롯과 분가할 때 믿음으로 롯에게 다 양보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에게 언제든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단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편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조카 롯을 구하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을 순식간에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몰아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긴 것은 바로 대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이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된 것은, 그 배후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때 비로소 ‘아,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에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바로 십일조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린 것이 십일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십일조는 드리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십일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사람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물질 혹은 돈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에 옷이 필요하고 먹어야하고 잠을 자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잠재울 수 있는 집, 배불릴 수 있는 음식,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사는 평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물질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상하게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 ‘물질이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 해 졌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대화할 때 나타납니다. 21 절에 보면 소돔 왕이 자신들을 구해준 아브람에게 고마워서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져도 좋소. 그런데 우리 성읍 사람들은 되돌려주셨으면 하오.’하고 제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마움을 돈으로 해결합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2-23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당신이 말하기를 ‘그 때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소돔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물질에서 자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가병 318 명으로 전쟁에 개입해서 그돌라오멜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또 소돔 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쟁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하면 큰 일 날 것 같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쓸 돈과 쓰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말아야 할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거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여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